

# 우리나라 불복장의 특징

이선용\*

- I. 머리말
- II. 『造像經』의 구성과 특징
- III. 五方の 형성과 의미
- IV. 八葉筒과 喉鈴筒의 형성과 의미
- V. 맺음말

## I. 머리말

불보살상을 종교와 신앙의 대상으로 신성성을 부여하는 佛腹藏儀式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불교의식으로써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간다라 지방에서는 불상의 정수리 부분에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불보살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의식이 佛教造像과 관련하여 통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불복장은 像 안에 腹藏孔을 만들고 그 안에 여

\* 수덕사 근역성보관

<sup>1</sup> 사리 봉안과 관련해서는 이주형, 「간다라 불상과 숭례 奉安」, 『中央아시아研究』9(2004), pp. 12-159. 참조.

리 物目<sup>2</sup>을 안립<sup>3</sup>하는 형식으로 정착되었으며, 안립물목에 있어서도 五臟六腑를 안립하는 중국의 복장 형식과 상이한 모습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불복장이 독자적인 형식으로 발전한 데에는 물목과 그 의미, 그리고 안립 방법에 이르기까지 근간을 마련한 『造像經』<sup>4</sup>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조상경』은 밀교 경전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경전의 사상과 성격을 통해 불복장이 표방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조상경』에서 중점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五方과 五佛, 그리고 우리나라 불복장의 심장 역할을 하는 八葉筒과 喉鈴筒에 대하여 밀교 경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造像經』의 구성과 특징

『조상경』은 판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大藏一覽經」造像品, 「諸佛菩薩腹藏壇儀式」, 「妙吉祥大教王經」, 「三悉地檀釋」이 기본 구성이며, 이들 경전들은 다른 경전들을 도입·수용하였다. 그 중 「제불보살복장단의식」, 「묘길상대교왕경」, 「삼실지단석」은 물목, 의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불보살복장단의식」은 1824년 유점사판을 기준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sup>5</sup> 그중 腹藏所入諸色은 복장에 들어가는 물목이 서술되었다.<sup>6</sup> 특히 오방위에 따라 조성되는 물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sup>7</sup> 「묘길상대교왕경」은 五寶瓶, 五穀, 五寶, 五藥, 五香, 五黃, 五芥子, 五色綵幡, 五色絲, 五時花, 五菩提樹葉, 五吉祥草, 五傘蓋를 아사리[阿闍梨]가 안립

2 복장에 들어가는 개개의 복장물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3 ‘넣는다’라는 의미로 安置, 納入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1824년 楡岾寺板 『造像經』 「喉鈴筒內安立次第」와 「黃綉幅子內安立次第」에서 ‘안립’을 동일한 개념으로 서술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도 物目を 尊像의 내부에 넣는다는 의미로 ‘안립’이라 표기하였다.

4 현재까지 『조상경』은 1575년 용천사판 『造像經』과 1677년 능가사판 『觀相儀軌』, 1720년 화장사판 『華嚴造像』, 1746년 김용사판 『造像經』, 1824년 유점사판 『造像經』의 판본 5종이 알려져 있다.

5 유점사판을 제외하고 다른 4종의 『조상경』 판본에는 「所入諸色」, 「腹藏所入抄錄」, 「筒內藏次第」로 서술되어 차이가 있다.

6 서술된 물목의 종류는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兩面圓鏡, 五色線, 黃綉幅子, 舍利七粒, 舍利盒, 喉鈴筒, 四方呪, 八葉大紅蓮呪, 天圓, 地方, 五輪種子, 報身呪, 化身呪, 眞心種子, 五方鏡, 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陀羅尼이다.

7 각주 2의 물목 중 오색선, 오륜종자, 보신주, 화신주, 진심종자, 오방경 이외에 五寶瓶, 五穀, 五寶, 五藥, 五香, 五黃, 五芥子, 五色綵幡, 五時花, 五菩提樹葉, 五吉祥草, 五傘蓋, 五杵가 오방위에 의거하여 나열되었다. 이를 통해 오방위에 따른 물목의 종류와 색, 五形, 五字 등 밀교 의례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하면서 108편씩 염송되는 진언을 기술함으로써 불복장의식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8</sup> 「삼실지단석」은 秘密悉地, 入悉地, 出悉地の 三種悉地, 점안 관련 범자, 불보살진언 등의 식단 및 점안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경전들은 불복장 구성에 따른 제반의식과 절차, 물목의 종류와 의미 등을 총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불교의식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불복장은 중국·일본과 차별되는 고유한 불교의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다.<sup>9</sup>

불복장 물목의 구성과 오보병의 안립 방법 등은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하 『대일경』),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이하 『금강정경』), 그리고 특히 『佛說陀羅尼集經』(이하 『다라니집경』)과의 연결성을 통해 도량결계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0</sup> 또한 『묘길상대교왕경』은 『妙吉祥平等秘密最上觀門大教王經大教王經』(이하 『묘길상대교왕경』)<sup>11</sup> 卷第1의 오병관정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어 11세기 고려에 유입되어 우리나라 불복장 물목의 구성 및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다.<sup>12</sup>

이처럼 『조상경』과 불복장의식의 형성에 있어 밀교 경전들과의 영향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첫 번째, 우리나라 불복장에서 심장 역할을 하는 팔엽통이나 후령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불보살복장단의식」과 『묘길상대교왕경』은 후령통 안에 들어가는 오보병에 집중하고 있으며, 『묘길상대교왕경』과 『다라니집경』에서도 五瓶을 중심으로 한 작법의식이 중심이다. 두 번째, 『묘길상대교왕경』과 『다라니집경』에서는 중기 밀교 이후 태장과 금강계 밀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五智의 의미와 사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삼실지단석」, 그리고 불복장에 있어 방위와 관련된 주요 물목인 五輪種子, 眞心種子, 五方鏡의 의미와 실체가 설명되지 않는다.

「제불보살복장단의식」에는 물목을 서술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다라니집경』의 壇의 의미, 『대일경』의 만다라의 의미, 『大毘盧遮那成佛經疏』(이하 『대일경소』)의 오방색의 의미 등 각각의 경전을 인용하여 불복장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였다. 『조상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sup>8</sup> 이선용,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에 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278(2013), pp. 125-162.

<sup>9</sup> 태경, 『조상경-불복장의 절차와 그 속에 담긴 사상』(운주사, 2006); 이승혜, 「高麗時代 佛腹藏의 形成과 의미」, 『美術史學研究』285(2015), pp. 71-100; 정은우, 「고려시대 불복장의 특징과 형성배경」, 『美術史學研究』286(2015), pp. 31-58. 참조.

<sup>10</sup> 정은우(2015), 앞의 논문, pp. 43-47.

<sup>11</sup> 『妙吉祥平等秘密最上觀門大教王經大教王經』을 『묘길상대교왕경』으로 약술하여 『조상경』 「묘길상대교왕경」과 구분하였다.

<sup>12</sup> 태경(2006), 앞의 책, pp.42-54; 이승혜(2015), 앞의 논문, pp. 80-86. 참조.

단은 두루 모인다는 뜻이며, 『다라니집경』의 여러 덕을 갖춘 곳으로 후술하였다. 특히 단은 만다라가 구현되는 곳으로써 모든 부처님이 一味法界인 만다라에서 나타난다는 『대일경』<sup>13</sup>과 만다라를 發生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일경소』<sup>14</sup>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불복장의식에서의 단과 만다라는 부처님이 출생하는 곳으로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유점사판에만 포함되어 있는 腹藏壇衆會議는 복장을 조성하는 날 아사리에 의해 진행되는 의식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일경』구연품에 7일 작단법에서 확인된다. 다만 7일 작단법은 『묘길상대교왕경』, 『다라니집경』과 같이 만다라를 건립하는 作壇에 대한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불복장의식과 차이가 있지만 본질, 즉 부처님을 발생, 출생시키기 위한 개념을 공통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設에는 事와 理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의미를 강조하였다.<sup>15</sup> 복장으로 안립되는 모든 물목들은 ‘事’가 되는 것이며, 사가 안립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理’가 된다. 사에 해당하는 여러 물목들은 불상의 내부로 안립됨으로써 이를 갖추게 된다.<sup>16</sup> 태장과 금강계의 관계에 대해서 『대일경』에 기초한 태장을 理, 『금강정경』을 기본으로 한 금강계를 智로 규정하고 있는데,<sup>17</sup> 여기서 이는 보여지는 것, 지는 보는 입장에서 서는 것<sup>18</sup>이라는 연결된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는 본질인 것, 지는 정신적인 것으로 각각의 이와 지를 도형화 한 것이 태장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이다. 태장은 물질세계, 금강계는 정신세계로써 『조상경』의 사와 이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처럼 『조상경』에서도 단을 통한 의식의 수행과 출생, 사와 이 등 불복장의식의 중심 내용은 모두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중기 밀교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불복장의식에 있어 『묘길상대교왕경』, 『다라니집경』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는

<sup>13</sup> 善無畏·一行譯, 『대일경』(T.18, 5b.26-5c.01)

<sup>14</sup> 一行著, 『대일경소』(T.39, 625a.24-29)

<sup>15</sup> 『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1824년 榆岾寺板.

‘夫物者事也 易曰通變之謂事 所以爲通變者理也 事之行處 理固存也 故 事得理融 理隨事變 唯除靈知絕待之心 法身向上之理外 天下豈有棄事獨存之理 沒理自成一事也 凡所以像設之法太近於事 然更那裏自有理 徧於專門 事徧於理門也 所以先賢觀此腹藏之物 恐或後人着事迷理 故先以約理解釋 後以舉事分齊 明理事無礙之道也 如下文 自腹藏所入諸色 以下至終末五傘蓋金剛杵 總爲舉事分齊也 上文 自腹藏壇儀式 至腹藏所入諸色以上 即爲約理解釋也’

<sup>16</sup> 이선용, 『佛腹藏物 구성형식과 직물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39.

<sup>17</sup> 不空譯, 『攝無礙大悲心陀羅尼經計一法中出無量南方滿願補陀落海會五部諸尊等弘誓力方位及威儀形色執持三摩耶職曼荼羅儀軌』(T.20, 129b.23-28)

<sup>18</sup> 松長有慶·杉浦康平, 『美と宗教のコスモス—マンダラの世界』(日本 東京 講談社, 1983), p. 27.

<sup>19</sup> 태장과 금강계를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韓金科, 『法門寺地宮唐密曼荼羅略述』, 『법문사와 만다라의 세계』(해인행, 2005), p. 190. 을 참조하였다.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상경』의 형성에 있어 『대일경』과 『금강정경』과 더불어 『삼십지단석』의 삼중실지와 관련된 『三種悉地三部儀軌』<sup>20</sup>를 통해 우리나라 불복장의 특징인 팔엽통, 후령통, 그리고 오방의 형성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Ⅲ. 五方の 형성과 의미

#### 1. 五佛의 수용

우리나라 불복장의 모든 안립물목은 오방위에 기초한다. 오보병을 중심으로 한 오곡, 오보, 오약 등의 오방체계는 1575년 용천사판 『조상경』 이전 이미 고려시대 불복장부터 나타나고 있다.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의 안립 물목 기록인 〈彌陀腹藏入物色記〉에는 오곡, 오보, 오약, 오향, 오황을 기록하고 있으며,<sup>21</sup> 1322년 천수관음사 〈擧案〉에서도 팔엽통, 喉鈴, 七宝, 오향, 오약 등이 확인된다. 조선전기 일부 불복장에서는 후령통·오보병과 관계없이 한지로 싼 오곡, 오약 등이 별도로 안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곡, 오약, 오향, 오황, 오보가 중심 물목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묘길상대교왕경』은 물목을 안립하면서 진언을 염송하는데, 이는 오불, 五부와 관계된 진언

<sup>20</sup> 『三種悉地三部儀軌』는 善無畏 譯의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出三戒秘密三身佛果三種悉地眞言儀軌』,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戒秘密陀羅尼法』,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三界秘密陀羅尼』이다.

<sup>21</sup> 〈미타복장입물색기〉의 목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青木香 •藿香 •沈香 •乳香 丁香
- 苻子 •荷子 •人參 •甘草 •桂心
- 瑠璃 琥珀 眞珠 •生金 •生銀
- 大黃 小黃 牛黃 雌黃 雄黃
- 心鏡 心珠 喉鈴
- 五色帛
- 五色糸 十五尺
- 乾飯 五穀
- 黃幅子 舍利同 八葉同
- 青花 大青 大綠 朱紅 黃漆
- 南粉 漆 阿膠

정은우(2015), 앞의 논문, pp.40-41. 에 의하면 〈미타복장입물색기〉와 1458년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상에서 오곡은 다른 물목과 달리 세부 물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1575년 용천사판 『조상경』이 편찬되면서 오곡의 종류가 정확하게 정립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1 『조상경』 『妙吉祥大教王經』에 기록된 진언

방위	안립물목			五部	
동방	오 보 병	金剛波羅密菩薩眞言	오곡	阿閼佛眞言 / 金剛波羅密菩薩眞言	금강부
남방		寶生波羅密菩薩眞言	오보	寶生佛眞言 / 寶生波羅密菩薩眞言	보생부
서방		蓮華波羅密菩薩眞言	오약	無量壽佛眞言 / 蓮華波羅密菩薩眞言	연화부
북방		羯摩波羅密菩薩眞言	오향	不空成就佛眞言 / 羯摩波羅密菩薩眞言	갈마부
중방		根本波羅密菩薩眞言	오황	毘盧遮那佛眞言 / 根本波羅密菩薩眞言	불부

이며(표 1), 『묘길상대교왕경』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다.<sup>22</sup> 오보병은 보병의 방위에 따라 波羅密眞言을 염송하며, 오곡은 오보병 중 동방의 보병과 동일한 金剛波羅密菩薩眞言과 阿閼佛眞言, 오보는 남방 보병의 寶生波羅密菩薩眞言과 寶生佛眞言, 오약은 서방 보병의 蓮華波羅密菩薩眞言과 無量壽佛眞言, 오향은 북방 보병의 羯摩波羅密菩薩眞言과 不空成就佛眞言, 오황은 중앙 보병의 根本波羅密菩薩眞言과 毘盧遮那佛眞言을 염송한다. 『묘길상대교왕경』은 오보병의 오방, 그리고 동방의 오곡, 남방의 오보, 서방의 오약, 북방의 오향, 중앙의 오황 순서로 오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유점사판 『三十七尊說』에서 오부에 대해 중방은 佛部, 동방은 金剛部, 남방은 寶生部, 서방은 蓮花部, 북방은 羯摩部로 설명하면서 불부는 모든 부처님, 연화부는 보살, 금강부는 금강, 보생부는 모든 하늘, 갈마부는 귀신의 부라고 설명하였다.<sup>23</sup> 따라서 고려시대 이래로 오곡, 오보, 오약, 오향, 오황은 오보병의 중심 안립물목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오불과 오부를 상징하는 물목으로써 조선시대 『조상경』까지 그 의미와 상징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불과 오부는 밀교의 주요한 요소이다. 오불의 체제 이전 5세기 말부터 중방을 제외한 동남 서북의 四佛 체제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성은 7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하지만 금강계 후기 밀교 경전인 『묘길상대교왕경』과 같이 비로자나불이 중방에 배치되는 오불의 개념은 이미 8세기 이후부터 나타난다.<sup>24</sup> 8세기에 한역된 밀교의 근본 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통

<sup>22</sup> 오보병, 오곡, 오보, 오약, 오황은 오방위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오개자는 동남서북과 동남, 서남, 서북, 동북, 상방, 하방에 해당되는 大明王眞言이 서술되었다. 그외 오채반은 金剛手菩薩眞言, 오색사는 中方本尊隨求眞言, 오시화는 虛空藏菩薩眞言, 오보리수염은 地藏菩薩眞言, 오길상초는 吉祥草眞言, 오산개는 白傘蓋眞言을 염송하며, 5종의 『조상경』 모두 동일하다.

<sup>23</sup> 『三十七尊說』에 따르면 오부에 대한 설명은 淸涼疏에서 所辨한 것이며, 오부의 부연 설명은 准提經을 차용하였다.

<sup>24</sup> 방위에 따른 사불과 오불의 형성 과정과 계보에 대해서는 松長有慶 著, 張益 譯, 『밀교경전 성립사론』(불광출판사, 1993), pp. 147-158, 참조.

해 오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태장과 금강계 양부만다라로 형성된다. 이를 통해 『조상경』의 오불 체계는 중기 밀교서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체계가 후기 밀교서인 『모길상대교왕경』으로 이어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태장과 금강계 오불을 『조상경』과 비교하면 (표 2)와 같으며, 『조상경』의 오불과 오부는 근본적으로 금강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상경』에서는 오보병, 오곡, 오약, 오보, 오향, 오환을 안립할 때 방위에 따라 오부에 해당되는 바라밀진언을 염송한다. 『금강정경』에서 출생의 근본을 보리심으로 보고 이를 증득하게 위해 眞言行을 행하는데,<sup>25</sup> 진언행은 波羅密行을 대체하는 것이며, 바라밀행은 『대일경』에서도 행하는 염송이다.<sup>26</sup> 또한 『삼중실지삼부의귀』 중 하나인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戒秘密陀羅尼法』(이하 『삼중실지귀』)에 의하면, 동방은 寶幢, 또는 阿閼佛, 남방은 華開敷 또는 寶生佛, 서방은 阿彌陀, 북방은 鼓音 또는 釋迦牟尼, 중방은 毘盧遮那라고 설명하였다.<sup>27</sup> 여기서 북방의 석가모니불은 밀교에서 不空成就佛과 동격으로 여기기 때문에 태장과 금강계 오불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상경』은 근본적으로 금강계 오불을 따르고 있지만 『대일경』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2. 五智의 형성에 따른 五字와 五形, 五色

오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조상경』에서 방위에 따라 형태, 범자, 그리고 색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표 3). 五形, 五字, 五色은 방위를 알려주는 요소로 연구되고 있지만

표 2 태장·금강계 五佛과 『조상경』의 五佛 비교

구분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중방
태장 五佛	寶幢如來	開敷華王如來	無量壽如來	鼓音如來	毘盧遮那佛
금강계 五佛/五部	阿閼佛 /金剛部	寶生佛 /寶生部	阿彌陀佛 /蓮華部	不空成就佛 /羯摩部	毘盧遮那佛 /佛部
『조상경』 五佛/五部	阿閼佛 /金剛部	寶生佛 /寶生部	無量壽佛 /蓮華部	不空成就佛 /羯摩部	毘盧遮那佛 /佛部

25 김영덕, 『金剛界三十七尊의 研究』(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 77.

26 김영덕(1996), 앞의 논문, pp. 66-66.

27 善無畏 譯, 『삼중실지귀』(T.18, 911c.10-23)

불복장에서 오방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오방에 내재된 상징성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

불복장에서 오형, 오자, 오색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물목은 오방경, 오륜종자, 진심종자이다.

오방경은 복장제물해석분제이과설과 복장소입제색에서 각각 五鏡과 五方鏡이라 언급하고 있지만 동일한 물목을 가리킨다. 오방경은 『조상경』에서 동방-方鏡, 남방-三角鏡, 서방-圓鏡, 북방-半月鏡, 중방-圓鏡이며, 중방은 후령통의 내부에 안립하고 그 외 사방경은 후령통의 외부에 거는 것으로 서술하였다.<sup>28</sup> 오방경은 동방-大圓鏡智, 남방-平等成智, 서방-妙觀察智, 북방-成所作智, 중방-方便究竟智의 다섯가지 지혜를 상징하는데, 『華嚴經』에서 설하고 있는 보현보살의 如來藏身三昧에 들어가 五海印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하였다.<sup>29</sup> 『조상경』에서 언급한 오방경의 오지는 태장과 금강계 오불의 지혜와 동일하다.

오지와 오형의 전개는 오륜종자와 관련된다. 오륜종자의 오형, 오자, 오색, 오지, 오부, 오불은 『조상경』 5종의 판본에서 모두 확인된다.<sup>30</sup> 유점사판에서 오륜종자는 하나의 圓輪 안에 오방색과 오형을 갖춘 다섯 개의 五輪을 아교로 붙인다고 설명하고 五輪種子圖로 도해하였다.<sup>31</sup>

표 3 오보병 안립 물목 중 五形, 五字, 五色 관련 물목

	동	남	서	북	중앙
五方鏡	方鏡	三角鏡	圓鏡	半月鏡	圓鏡
五輪種子	靑綃 ㄱ輪	紅綃 ㄴ輪	白綃 ㄷ輪	黑綃 ㄹ輪	黃綃 ㅁ輪
報身呪	ㄱ字	ㄴ字	ㄷ字	ㄹ字	ㅁ字
化身呪	ㄷ字	ㄴ字	ㄹ字	ㅁ字	ㅂ字
眞心種子	靑綃輪 ㄱ字	紅綃輪 ㄴ字	白綃輪 ㄷ字	黑綃輪 ㄹ字	黃綃輪 ㅁ字
五寶瓶	靑色瑪瑙寶瓶	黃色摩尼寶瓶	紅色珊瑚寶瓶	綠色琉璃寶瓶	白色水晶寶瓶
五綵幡	靑綵幡	紅綵幡	白綵幡	黑綵幡	黃綵幡
五色線	靑線	紅線	白線	黑線	黃線
五時花	靑時花	紅時花	白時花	黑時花	黃時花
五蓋	靑蓋	黃蓋	紅蓋	綠蓋	白蓋
五杵	靑帛杵	紅帛杵	白帛杵	黑帛杵	黃帛杵

<sup>28</sup> 『造像經』 「諸佛腹藏壇儀式」條 腹藏所入諸色, 1824년 楡岾寺板.

‘若無金銀代以好紙造成也 四方鏡 筒外隨方懸之 中方鏡 筒底安之 然安能懸之 膠粘則無妨也’

<sup>29</sup> 『造像經』 「諸佛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設, 1824년 楡岾寺板.

‘表五智謂 尊勝儀云 東方大圓鏡智 南方平等成智 西方妙觀察智 北方成所作智 中方方便究竟智 華嚴經中 普賢 入如來藏身三昧 觀五海印 例比同’

오륜종자의 오형, 오자, 오색은 고려시대 합과 팔엽통의 내부에서 확인된다. 1302년 아미타불 <은계합>, 13~14세기 안정사 금동여래상의 <팔엽통>에서 오륜종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1346년 장곡사 약사여래불상은 발견 당시 <은합>의 내부에 오륜종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2</sup> 공통적으로 동방은 방형-청색, 남방은 삼각형-적색, 서방은 원형-백색, 북방은 반월형-흑색, 중방은 원형-황색의 직물로 그 형태를 만들고 방위에 해당되는 범자 또는 음역되는 한자를 기록하였다. 합과 팔엽통의 저면을 하나의 원륜으로 생각한다면 『조상경』의 내용과 부합된다. 고려시대 오륜종자의 색과 형태는 조선시대에도 확인된다. 1490년 해인사 대적광전과 비로전 목조비로자

표 4 五輪種子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중방
1302년 아미타불상				흑색직물 흔적	
13~14세기 안정사 목조여래상					-
1490년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1639년 수덕사 대웅전 아미타불상					

<sup>30</sup> 『造像經』, 「諸佛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設, 1824년 楡岾寺板.

‘東方 ㄱ 暗字 青色方形 大圓鏡智 從此字出生 安於臍下 金剛部主阿闍佛 南方 ㅋ 曉字 赤色三角形 平等成智 日星辰火光焰 從此字出生 安於胸中 寶生部主寶生佛 西方 ㆁ 鏗字 白色圓形 妙觀察智 山河萬物 從此字出生 安於口中 蓮華部主無量壽佛 北方 ㆁ 哈字 黑色半月形 成所作智 禾穀果實繁茂 從此字出生 安於額上 羯摩部主不空成就佛 中方 ㆁ 坎字 黃色圓形無定也 方便究竟智 人天長養顏色滋美 從此字莊嚴 安於頂上 如來部主毘盧遮那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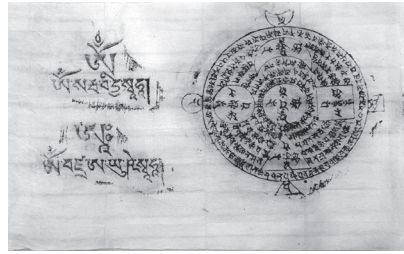
<sup>31</sup> 『造像經』, 「諸佛腹藏壇儀式」條, 腹藏所入諸色, 1824년 楡岾寺板.

‘五色綃 隨方色 造五輪形 以朱書各寫一字 又以白綃 別爲一圓輪 却將五輪字隨方輪環膠粘於圓輪內 然後 安於筒內 時必無散動混雜之弊也 下圖示之’

<sup>32</sup> 閔泳珪,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人文科學』14-15(1966), p. 239.

나불상은 <오보병>을 오륜종자의 오형과 오자, 오색으로 나타내었으며, 그 안에 안립한 직물 문치에도 동일한 오자를 기록하였다. 조선시대 오륜종자는 오보병 안에서 오방 모두 원형 또는 방형 직물에 범자를 기록하고 있어 오형은 변경되었으나 오색과 오자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표 4). 1661년 상원사 문수전 목조문수보살상 <수미산우주론문자만다라>는 원륜의 외부 사방에 사방경을 두고 그 안에 四方呪, 그리고 원륜 안에는 오륜종자 오자를 각각의 오형에 모두 배치하여 오방경, 사방주, 오륜종자가 결합되고 있다(도 1).

오륜종자의 오지, 오형, 오색, 오자, 오부, 오불은 『삼종실지계』와 상통한다(표 5). 『삼종실지계』는 『조상경』의 「삼실지단석」과 같이 出悉地(아바라하카 出悉地), 入悉地(아라바사나 入悉地), 秘密悉地(암밤람함캄 秘密悉地)의 삼실진언으로 구성되었다. 비밀실지는 오륜종자와 달리 五大와 五藏이 추가되어 있는 대신 오자의 봉안 위치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대일경』의 오형, 오대, 오자 등과 『금강정경』의 오부, 오불, 오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sup>33</sup> 오륜종자와 비밀실지는 양부의 수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sup>34</sup> 『삼종실지계』의 오방관은 1784년 雙溪寺 修道庵版 『密教刊行集』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sup>35</sup> 우리나라 의식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삼실진언은 상원사 문수동자상 <황초폭자>(도 2)에 ‘옴마니반메훴’의 육자대명진언과 함께 인쇄되어 있어 이미 조선전기 불복장의 한 요소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실진언은 괘불과 여러 불화의 가장자리에 기록된 진언 중 하나이다.<sup>36</sup>



도 1 상원사 문수전 목조문수보살상 <수미산우주론문자만다라>, 1661년



도 2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황초폭자>, 15세기(월정사 성보박물관 제공)

33 김영덕, 「三種悉地法에 관한 연구」, 『密教學報』10(2009),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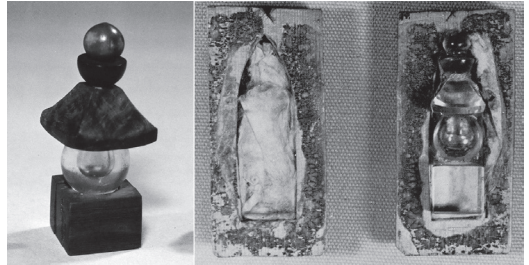
34 金武生, 「六字眞言의 五佛 五方觀의 成立過程」, 『密教學報』2(2000), pp. 14-24.

35 김영덕, 「金剛界曼荼羅의 韓國的變容에 관한 연구」, 『佛敎研究』34(2011), p. 157.

36 이선용(2013), 앞의 논문, pp. 140-151, 참조.

『대일경』『秘密曼荼羅品』에서는 五輪을 관상하는 五字嚴身觀을 설명하고 있는데,<sup>37</sup> 이를 『대일경소』에서는 수륜-정방형-배꼽이하, 수륜-원형-배꼽에서 심장, 화륜-삼각형-심장에 서 이후까지, 풍륜-반월형-이후에서 미간까지, 공륜-圓點-미간에서 정수리로서 오륜은 몸 부분과 상통되며, 각각의 오륜에는 오자를 안포한다고 서술하였다.<sup>38</sup> 이 오륜을 형상화 하면 바로 오륜탑이 된다. 오륜탑은 비록 우리나라 북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북장에서 발견된다(도 3).

진심종자는 오륜종자와 마찬가지로 원륜 안에 오방색에 따라 오륜을 만들어 범자를 기록한다.<sup>39</sup> 진심종자는 동방은 흙-청색-아촉불, 남방은 드락-적색-보생불, 서방은 홍릭-백색-미타불, 북방은 악-흑색-불공성취불, 중방은 밤-황색-비로자나불로 오륜종자와 비밀실지의 오색·오불과 합일된다. 1302년 아미타불 <은제합>,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의 <팔엽통>,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과 상원사 문수전 목조문수보살상의 <후령통> 뚜껑 내외부에



도 3 좌: 大明國師像 <木·水晶五輪塔>, 鎌倉時代, 日本 京都 菴吟庵胡宮神社  
우: 釋迦如來像 <舍利塔>, 鎌倉時代, 日本 京都 峰正寺  
(『重要文化財別卷-像內納入品』I p. 27, 100)

### 표 5 五輪種子와 秘密悉地

五方	五字	五色	五刑	五部	五佛	五智	識	五藏	五大
동방	암	청색	방형	金剛部	阿閼佛	大圓鏡智	金剛地輪	간	地
남방	람	적색	삼각형	寶生部	寶生佛	平等成智	金剛火輪	심장	火
서방	밤	백색	원형	蓮華部	無量壽佛	妙觀察智	金剛水輪	폐	水
북방	함	흑색	반월형	羯摩部	不空成就佛	成所作智	金剛風輪	신장	風
중방	감	황색	원형	佛部	毘盧遮那佛	方便究竟智	大空輪	비장	空





<sup>37</sup> T.18, 31a.21-29

<sup>38</sup> T.39, 727c.08-728a.16

<sup>39</sup> 『造像經』『諸佛腹藏壇儀式』條 腹藏所入諸色, 1824년 榆岾寺板.

‘五色綃 隨方色 造五輪圓 以朱書各寫一字 又喉鈴筒八葉盖上 隨方書之輪書則如五輪種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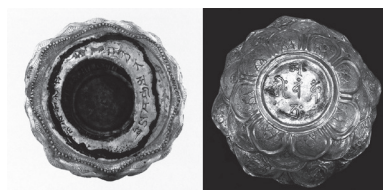
표 6 眞心種子

			
1302년 아미타불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	1490년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	1661년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상

오자를 기록하고 있는데(표 6), 오륜은 생략되었지만 뚜껑의 형태를 원륜으로 대체하고 있다. 진심종자의 오자는 금강계만다라의 중앙 성신화에 안치되는 오불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복장에서 발견되는 금강계만다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도 4). 중국에서도 법문사 지궁 출토 〈八重舍利器[八重宝函]〉에는 태장만다라, 〈오중사리기[五重宝函]〉 중 〈은제사리기[銀宝函]〉에는 금강계만다라가 표현되었다. 〈奉眞身菩薩像〉의 연화대좌의 표면에는 양부만다라, 그리고 대좌의 상대 상·하면에 각각 『삼중지단석』과 『삼중실지궤』의 삼실진언, 진심종자의 五佛種子가 선각되어 있는 등 이미 8세기에 진언의 수용이 확인된다(도 5).<sup>40</sup> 오륜종자와 진심종자는 이미 중기 밀교에서 그 근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묘길상대교왕경』의 유입보다 이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41</sup> 이처럼 오지와 오불, 오자, 오형 등은 오방경, 오륜종



도 4 일락사 철조여래좌상 〈금강계만다라〉, 麗末鮮初(수덕사 근역성보관 제공)



도 5 〈奉眞身菩薩〉 연화대좌 三悉眞言과 五佛種子, 唐代『法門寺文物圖飾』, p. 455, 『法門寺地宮唐曼荼羅之研究』, p. 278)

<sup>40</sup> 『法門寺文物圖飾』(文物出版社, 2009), pp. 414-464; 吳立民·韓金科, 『法門寺地宮唐曼荼羅之研究』(中國佛教文化出版有限公司, 1998) 참조.

<sup>41</sup> 태경(2006), 앞의 책, p. 48. 에 의하면 『삼실지단석』은 혜좌가 활동한 이후 9~10세기경 고려에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영덕(2009), 앞의 논문, pp. 35-54. 에서 『삼중실지삼부의궤』는 혜좌가 활동한 이후 나타난 사상으로 신라 시대 義林禪師와 不可思議와 관련하여 유입된 것으로 서술하였다.

자, 진심종자라는 안립물목으로 정착됨으로서 우리나라 불복장만의 독특한 형식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들 물목은 오불의 지혜로서 안립되고 있는 것이며, 이 지혜를 보배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보병이다.<sup>42</sup> 이를 통해 『조상경』에서 오보병과 오곡, 오보, 오약, 오향, 오황에 해당되는 오불이 모두 오불의 지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색은 오형과 더불어 방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오색은 다른 판본과 달리 유점사판에서 오산개, 그리고 佛身을 상징하는 오시화를 동방-청색, 남방-황색, 서방-홍색, 북방-녹색, 중방-백색으로 기록하였다.<sup>43</sup> 오색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서는 『다라니집경』, 고려시대 길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미 고려시대부터 명확하게 인식된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sup>44</sup> 오색은 『조상경』뿐만 아니라 『대일경』과 『금강정경』에서도 오불을 상징하는 색으로써 설명되고 있다(표 7).

오색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 무리가 있지만 금강계 오불로 서술된 『조상경』은 유점사판에서 다른 판본에 비해 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색이 금강계 오불의 오색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45</sup>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오색은 단순히 방위를 상징하기보다 오불과 관련된다고 추정된다.

표 7 오방에 따른 五色 비교

	태장만다라		금강계만다라		『조상경』 五寶瓶		1824년 유점사판 五時花	
동방	寶幢如來	적색	阿鞞佛	청색	阿閼佛 (瑪瑙寶瓶)	청색	五佛身	청색
남방	開敷華王如來	황색	寶生佛	황색	寶生佛 (摩尼寶瓶)	적색		황색
서방	無量壽如來	청색	阿彌陀佛	적색	無量壽佛 (珊瑚寶瓶)	백색		홍색
북방	鼓音如來	흑색	不空成就佛	녹색	不空如來 (琉璃寶瓶)	흑색		녹색
중방	毘盧遮那佛	백색	毘盧遮那佛	백색	毘盧遮那佛 (水晶寶瓶)	황색		백색

<sup>42</sup> 『造像經』 「諸佛腹藏壇義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設, 1824년 楡岾寺板. '表大日如來五智寶誥...'

<sup>43</sup> 유점사판을 제외한 다른 판본의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에서 오산개는 모두 동방-청색, 남방-적색, 서방-백색, 북방-흑색, 중방-황색으로 언급되었으며, 오시화는 모두 時花로 기록되었다.

<sup>44</sup> 정은우(2015), 앞의 논문, pp. 43-46. 참조.

<sup>45</sup> 유점사판 『조상경』에 내재된 금강계의 특징은 IV장에서 서술하였다.

## IV. 八葉筒과 喉鈴筒의 형성과 의미

### 1. 팔엽의 상징성과 팔엽통

불복장의 핵심이자 불보살상의 심장 역할을 하는 통과 합은 우리나라 불복장의 시대적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sup>46</sup> 합에서 통으로의 형태적 변화, 팔엽의 표현방법, 후혈의 생성 유무 등에 따라 그 변화 양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팔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복장을 구분하는데 있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장에 있어 의식의 수용과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물목이다.

고려시대에는 합과 통이 기본적인 형태이며, 일부 합의 표면에는 팔엽을 표현하였다.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과 안정사 금동여래상의 <팔엽통>(도 6, 7)에는 연자와 연방, 팔엽을 주사, 또는 채색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의 <팔엽통>은 뚜껑 측면에 연방의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팔엽과 관련해서 <彌陀腹藏入物色記>에는 후령통이라는 명명 대신 '八葉筒'이 확인되며,<sup>47</sup> <舉案>에서도 '八葉筒'이 기록되었다. 이외에도 『東文選』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에는 팔엽통에 오색사리와 복장물을 담아 삼존불에 안치하였다



도 6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 <팔엽통>, 1346년 (수덕사 근역성보관 제공)



도 7 안정사 금동여래상 <팔엽통>, 13-14세기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sup>46</sup> 후령통의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선용(2005), pp. 61; 이선용, 「佛腹藏物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研究』 261(2009), pp. 84-90. 참조.

<sup>47</sup> 각주 21 참조.

<sup>48</sup> 『東文選』 第68卷,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



도 8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 불상 <팔엽연화>, 1490년(해인사성보박물관 제공)



도 9 심곡사 오층석탑 불감 삼존불 <팔엽연화>, 15세기 말(국립전주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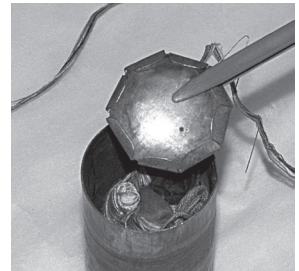
도 10 목조관음보살상 <후령통>, 조선전기(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고 기록<sup>48</sup>하고 있어 팔엽통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따라서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과 안정사 금동여래상의 <팔엽통>은 실제 팔엽의 형상을 선묘나 채색을 가미하여 형태적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sup>49</sup>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당시 팔엽통이 조선시대 후령통과 대별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는 팔엽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에 이르러 팔엽은 합이 통형으로 변화되면서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하는 관 형태의 후혈과 함께 뚜껑과 결합된다. 특히 팔엽은 후령통 안으로 안립되면서 입체 형태로 제작된다.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과 15세기 말에 건립되었다고 추정되는 심곡사 오층석탑 불감 내 삼존불 안에서는 연봉이 있는 <팔엽연화>(도 8, 9)가 확인되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3세기 목조관음보살상<sup>50</sup>의 몸체 하부에서 발견된 후혈과 팔엽형태의 뚜껑이 있는 <후령통>(도 10)과 함께 <팔엽연화>(도 11)가 발견되었다. 비록 17세기의 기록이지만 1660년 법주사 소조삼존불상 <발원문>에는 후령통, 후령, 팔엽을 각각 시주하고 있어 팔엽



도 11 목조관음보살상 <팔엽연화>, 조선전기(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도 12 수덕사 목조아미타불상 <팔엽개>, 1639년

<sup>49</sup> 김순아,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은제사리합·팔엽연화형 받침 고찰」, 『불교미술』 20(2008), pp. 37-67. 동국대학교 소장 고려시대 <은제사리합>과 <팔엽연화형 받침>은 진심종자와 삼신불의 선각, 그리고 팔엽 안쪽 중앙에 새겨진 범자 등을 토대로 <조상경>과 관련된 불복장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sup>50</sup>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조관음보살상의 두부에서 발견된 복장은 조성 당시 안립된 것이며, 하부에서 발견된 불복장은 조선전기에 재안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소연·이용희·박승원, 「목조관음보살좌상(덕수953) 조사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 I』(2014), pp. 79-107. 참조.

표 8 『조상경』 판본별 명명 비교

1575년 龍泉寺板 『造像經』	1677년 楞伽寺板 『觀相儀軌』	1720년 華莊寺板 『華嚴造像』	1746년 金龍寺板 『造像經』	1824년 榆岾寺板 『造像經』
八葉筒, 喉鈴八葉筒, 筒, 銀合筒	八葉筒, 銀合筒, 喉鈴八葉筒, 筒, 喉鈴八葉筒銀合, 喉鈴銀合八葉筒	八葉筒, 筒, 銀合, 喉鈴八葉筒	銀鈴, 喉鈴八葉筒, 筒, 八葉筒	喉鈴筒, 筒

은 15세기 이후 고려시대와 달리 합의 한 요소가 아닌 독립된 물목으로 개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팔엽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후령통의 내부에 안립되지만 형상만을 차용한 평면적 형태로 정형화되었다(도 12).

비록 『조상경』 중 용천사판을 상위하는 판본이 전하고 있지 않아 고려시대의 불복장에 대한 경전의 근거는 찾을 수 없으나 현존하는 5종의 『조상경』을 통해 통과 합, 그리고 팔엽에 대한 근거와 변화 양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표 8).<sup>51</sup> 4종의 판본에서 모두 喉鈴八葉筒이라는 명명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1677년 능가사판의 경우 다른 판본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喉鈴八葉筒銀合, 喉鈴銀合八葉筒이라는 기록을 통해 팔엽과 후령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팔엽통이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불복장과 문헌에서 확인되는 팔엽통과 상통한다.

고려시대 팔엽통 안에는 오보병과 오곡, 오보, 오약, 오향, 오황 등이 안립되며, 이는 전거한 것과 같이 오방과 오부를 상징한다. 즉, 팔엽통은 외부에 주사나 채색을 통해 팔엽을 형상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오불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오불과 팔엽을 결합한 것이 바로 팔엽통이다.

팔엽과 오불의 결합은 태장만다라의 핵심이다. 태장만다라는 불부, 금강부, 연화부의 3부가 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며,<sup>52</sup> 그 중 中台八葉院이 중심이다. 중대팔엽의 형상에 대해 『대일경』은 內心, 즉 중대팔엽은 연꽃으로 하고 여덟 잎은 바르고 원만하며, 꽃술과 수염은 모두 장엄하게 하는데, 모든 잎 사이에서 금강의智印이 나오고 화려한 臺의 가운데로부터 대일여래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sup>53</sup> 또한 내심의 大蓮華는 여덟 개의 꽃잎에 꽃술과 수염이 있다고 하고 있어<sup>54</sup> 중대

<sup>51</sup> 후령통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선용(2005), 앞의 논문, pp. 56-61, 참조.

<sup>52</sup> 태장만다라는 불부의 中台八葉院, 遍知院과 持明院, 금강부의 金剛手院, 연화부의 觀音院의 3부가 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며, 그 주위로 釋迦院, 文殊院, 虛空藏院, 蘇悉地院, 除蓋障院, 地藏院, 그리고 사방으로 最外院(外金剛部院)으로 구성되었다.

<sup>53</sup> T,18, 6c,12-17

<sup>54</sup> T,18, 19a,23

팔엽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다.

중대팔엽원의 중앙은 대일여래인 비로자나불, 즉 八葉大蓮華王을, 그 주위의 八方에 사불과 四菩薩을 안포한다. 사불은 동방의 보당여래, 남방의 개부화왕여래, 서방의 무량수여래, 북방에 고음여래를 가리키며, 사보살은 동남방의 보현보살, 동북방은 관자재보살, 서남방에 묘길상동자, 서북방에 자씨보살이다.<sup>55</sup> 〈봉진신보살상〉의 연화대좌 하단에는 사불과 사보살을 팔엽연화에 범자로써 안포하고 있으며(도 13), 일본 東京 東寺 觀音院 소장 『大悲胎藏曼荼羅設現圖所傳快明鈔』卷1에서도 오불과 사보살의 범자가 기록된 중대팔엽원과 그 중앙에 오류탐이 확인된다(도 14). 『大樂金剛不空眞實三昧耶經般若波羅蜜多理趣釋』(이하 『이취석』)에는 팔엽에 관상되는 사불과 사보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sup>56</sup> 팔엽을 통해 태장만다라를 관상하는 방법을 반영시킨 것이다.<sup>57</sup> 또한 『삼종실지계』에 의하면, '중대는 비로자나 自心の 八葉華이다'라고 설명하였다.<sup>58</sup> 『대일경소』 『成就悉地品』에서도 본존을 관할 때 心 즉, 심장 위에 안치하라고 설명하고 있다.<sup>59</sup> 중대팔엽의 내심으로부터 비로자나불이 나타나고 여덟 잎의 연꽃으로부터 사불과 사보살을 안포하는 것은 연꽃이 모든 불보살의 출현, 생명의 근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0</sup> 중대팔엽원의 팔엽은 『대일경』에서 大悲胎藏曼荼羅, 胎藏生曼荼羅, 悲生曼荼羅라고 하여 胎藏을 母의 子宮처럼 여러 가지의 것들이 태어나오게 하는 근원<sup>61</sup>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관상을 통해 만다라가 형성되는 근본이며, 그 자체가 비로자나불임과 동시에 불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근원인 출생을 말한다. 『조



도 13 〈奉眞身菩薩〉 연화대좌 中台八葉院, 唐代(『法門寺文物圖飾』, p. 460)



도 14 『大悲胎藏曼荼羅設現圖所傳快明鈔』卷1 中台八葉院, 日本 東京 東寺 觀音院(『法門寺地宮唐曼荼羅之研究』, p. 312)

<sup>55</sup> T.18, 36c.05-12

<sup>56</sup> 佛空譯, 『이취석』(T.19, 612b.10-11)

<sup>57</sup> 정성준, 『밀교의 관세음보살의 수행이념』, 『天台學研究』7(2005), p. 375.

<sup>58</sup> T.18, 911c.02-03

<sup>59</sup> T.39, 705c.23-28

<sup>60</sup> 조금자, 『태장 만다라 중대 팔엽원 연꽃의 상징적 표현』, 『밀교세계』6(2010), p. 113.

<sup>61</sup> 김영덕, 『밀교란 무엇인가?(제5회)』, 『밀교세계』5(2009), p. 207.

상경』에서 오보병을 비롯한 오곡, 오약, 오보, 오향, 오황에 염송되는 진언이 비록 금강계 오불로 명시되었지만 전거한 것과 같이 양부의 오불은 동체이다. 따라서 태장만다라의 팔엽에 안포되는 오불은 『조상경』의 오불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묘길대교왕경』과 『다라니집경』에서 오병을 담은 팔엽통이나 후령통의 생략은 오병관정의 식에 의한 만다라작법을 설하고 있는 것으로써 오병을 地壇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라니집경』의 설명과 같이 불복장의 오보병은 직물로 만들고 오색실로 감아 그 크기와 형태를 최소화하여 팔엽통이나 후령통에 안립되면서도 『조상경』에서는 재료를 『묘길대교왕경』과 동일하게 수정, 마노, 유리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경전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오보병의 재료와 형태, 안립방법은 불복장의 용도로써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62</sup> 팔엽에 오불을 안포하고 있는 『대일경』의 중대팔엽은 팔엽의 형태와 오불을 각각 팔엽통과 오보병이라는 물목으로써 고려시대 불복장에 변화·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일경소』 「성취실지품」에서는 심장이 있는 곳, 팔엽연화에 관을 지어서 모든 꽃술을 완전히 피어나게 하라고 서술하였으며,<sup>63</sup> 팔엽이란 사방사우로 사우는 여래의 四智로 설명하였다.<sup>64</sup> 「入慢荼羅具緣眞言品」의 內心의 妙白蓮은 마음, 즉 심장을 가리킨다. 실제 중대팔엽은 인도 사람의 의학에서 8엽의 연꽃을 인간의 심장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sup>65</sup> 불복장에서 심장을 상징하는 팔엽통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

## 2. 후령의 의미와 후령통의 형성

팔엽과 함께 중요한 물목은 후령과 후혈이다. 후령은 1302년 아미타불,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 안정사 금동여래상, 고려말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 등 고려시대 불복장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미타복장입물색기〉와 〈거안〉에서도 후령을 복장의 안립물목으로 기재하고 있다. 1389년 수국사 목조아미타불상의 복장물 중 〈후령〉 3점이 확인되었는데, 1562년 재안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주사 소조삼존불상의 〈발원문〉의 시주 물목에서도 후령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sup>62</sup> 이승혜(2015), 앞의 논문, pp. 89-91에 의하면 국립박물관 소장 목조관음보살상의 하부에서 발견된 목제 오보병은 형태와 그 안에 안립된 물목 등 오병관정 기능에 충실한 도구로서 당시 오보병의 原意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sup>63</sup> 각주 54 참조

<sup>64</sup> T.39, 706a, 07-11

<sup>65</sup> 박준석, 「밀교의 아자관에 대한 연구」, 『密教學報』14(2013), p. 95

에 이르러 후령은 대부분의 불복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고려시대의 불복장과 대조를 이룬다. 조선시대 불복장 중 여러 발원문과 유점사판에서 후령통이라는 명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후령과 관련된 명명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sup>66</sup> 조선시대 후령통의 뚜껑에는 후혈이 등장하며, 유점사판에서 처음 기술된다.<sup>67</sup> 후혈은 실제 고려말 뚜껑 중앙에 원형 구멍에서부터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으며(도 15),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도 16),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등 조선전기부터 후령통의 한 요소로 정형화 되었다. 후령통은 후혈을 통해 오색실로 내·외부의 방위가 연결되어 오방위를 중심으로 한 방위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이처럼 후혈은 후령통의 형성과 의미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후혈의 생성시기와 후령이 안립되지 않는 시기가 상통하는 것으로 보아 후령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령과 후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금강계만다라의 소의경전인 『금강정경』이다.<sup>68</sup> 금강계만다라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의 금강계 오불이 성립되면서 四方四佛로부터 16대보살이 출생하고 다시 비로자나불과 사불 사이의 상호공양에 의해 四波羅密을 비롯한 內四供養·外四供養, 四門에 鉤, 索, 鎖, 鈴의 四攝의 16공양보살이 출생하면서 37존이 전개된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모인 불보살과 명왕 등의 상호관계를 금강계라는 도회 만다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9</sup> 금강계만다라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오불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내외공양, 사섭에 이르기까지 상호 공양과 협조에 의해서 유출되는 것으로 37존



도 14 〈목제합〉, 고려말



도 15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 〈후령통〉, 1490년(海印寺 비로자나불복장유물 특별전-誓願, p. 24)

<sup>66</sup> 柳龍桓, 「佛腹藏物の 實證의 研究-大勢至菩薩像의 腹藏과 儀軌의 比較-,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の 調査研究』(운양민속박물관, 1991), p. 262.

<sup>67</sup> 『造像經』, 「諸佛腹藏壇儀式」條 腹藏所入諸色, 1824년 榆岾寺板.  
‘具八葉蓋 盖上中央通喉穴 筒體形可用五瓶許造之 塑像容圓筒 畫幀用方筒...’

<sup>68</sup>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成身會를 중심으로 모두 9회로 구성되며, 중앙의 성신회는 금강계만다라의 중심이다.

<sup>69</sup> Nabin Bajracharya, 「밀교 오불의 성립에 관한 연구」(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72.

이 서로 영향 관계에 있다. 즉, 금강계만다라의 중앙에 안포되는 비로자나불의 법은 가장 외곽에 자리하는 金剛鉤, 金剛索, 金剛鎖, 金剛鈴의 사섭보살을 통해 네 가지의 덕인 四攝智, 善巧智, 堅固智, 歡樂智를 현실에서 구현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비로자나불은 사섭보살 중 마지막 金剛鈴菩薩을 유출하여 미묘한 소리를 발생한다. 이것을 編入이라고 하는데 금강령이 내는 미묘한 소리가 일체의 몸과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sup>70</sup> 『佛說一切如來真實攝大乘現證三昧大教王經』(이하 『진실섭경』)에서는 금강령보살을 編入大士三昧로부터 출생하였다<sup>71</sup>고 서술하고 있으며, 金剛鈴을 金剛編入, 金剛鈴天, 解脫金剛이라고도 한다.<sup>72</sup> 『略述金剛頂瑜伽分別聖位修證法門』(이하 『성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의 내심에서 般若波羅蜜金剛鈴三摩智를 통해 金剛鈴光明을 유출하여 시방세계를 비춘다고 설명하고 있어<sup>73</sup> 금강령의 소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강계만다라의 주존인 비로자나불은 금강령보살의 미묘한 소리를 통해 비로소 일체의 법을 완성하게 된다.

유점사판의 「喉鈴筒安立次第」의 내용 중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던 후령이 등장한다. 후령통 내부에 오보병을 비롯한 다른 물목을 안립한 다음 喉鈴에 구멍을 뚫은 후에 통의 덮개를 막는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4</sup> 이에 반해 1575년 용천사판부터 1746년 김용사판에 이르기까지 4종의 판본에서 후령은 「소입제색」에서만 확인되는데, 「五色繩合一條長十尺或五十尺結環喉鈴也」라 하여 오색승 즉, 오색실로 후령을 結하여 안립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유점사판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4종의 판본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점사판에 기록된 후령은 어떤 구체적인 물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sup>75</sup>

유점사판은 다른 판본과 달리 오방색, 37존설을 추가하는 등 금강계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실제 유점사판의 「삼실지단식」에는 삼실지와 점필을 서술한 후 五如來種子, 四波羅密菩薩種子, 內八菩薩種子, 外八菩薩種子, 鉤索鎖鈴種子의 진언을 서술하였다. 이는 전거한 오부

70 김영덕, 「密敎의 五相成身觀 研究」(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 176.

71 施護譯, 『진실섭경』(T18, 351b,03-12)

72 김영덕(1996), 앞의 논문, p. 175.

73 佛空譯, 『성위경』(T18, 290c,01-291a,01)

74 『造像經』, 「喉鈴筒內安立次第」條, 1824년 楡岾寺板.

‘先安五輪種子 次安真心種子 次安報身呪 次安化身呪 次安准提呪 次安兩面圓鏡 次安五寶瓶 次安舍利盒中有舍利七粒 次安無孔心珠 次以兩面圓鏡覆五瓶口 以其繫瓶口五色線合之 拔出於筒蓋喉鈴穴然後 筒蓋閉之 筒底安中方圓鏡 次以地方抱裹於筒 詳審方位 次以八葉仰面天圓下覆 而以五色線貫穿蓮華天圓之上 以天圓抱裹地方之外 今天抱地外 然後以黃綺幅子畢封也’

75 태경스님(2006), 앞의 책, p. 60. 「후령통안립차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보병의 보병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후령이라고 해석하면서 후령과 보병을 동격으로 보고 있다.

와 오불의 명칭뿐만 아니라 진언을 통해서도 오불, 사보살, 내외 각 팔보살, 그리고 사섭보살의 구성 체계를 지닌 금강계의 성격이 강하게 표현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점사판에 수록된 37존과 관련된 종자는 금강계만다라에서 비로자나불을 위시로 마지막 금강령보살을 통해 일체의 법을 완성하기 위한 진언이라 할 수 있다. 『조상경』뿐만 아니라 망월사본 『진언집』에서도 오불과 37존의 진언 및 종자가 수록되어 있는 등 조선시대 간행된 의식집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는 당시 금강계 중심의 불교의식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상경』에서 금강령보살이 단독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후령에 구멍을 뚫는다는 유점사판의 내용은 후령을 흔들어서 부처님의 소리를 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며, 이 소리는 후령통의 후혈을 통해 밖으로 증폭되게 되는 것이다. 실제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에서 〈팔엽통〉은 가슴 부분, 〈후령〉은 〈梵字圓圈陀羅尼經〉 4매에 싸인 채 목 부분에서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후령은 목, 또는 후령통 주변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고려시대는 안립 위치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안립물목으로써 후령이라면 조선시대는 그 의미만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대일경소』에는 금강선법으로써 오색의 실을 합하는데 이때 오여래진언을 사용함으로써 오방 결합에 의한 만다라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sup>76</sup> 오색실에 의한 결합은 『조상경』에 나타나고 있으며, 〈미타복장입물색기〉와 『동국이상국집』에서도 여러 물목과 함께 오색사가 별도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대일경소』에서 오색실을 『조상경』의 오방경과 동일한 여래의 오지로 해석하고 있어 오색실은 무한한 정계로써 법의 연결과 결합 등을 상징한다. 즉, 후혈을 통해 내·외부가 통하게 됨에 따라 후령의 상징적 소리로서 만법이 증폭되고, 오보병의 오색실이 오경과 연결됨으로써 오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령통은 오불의 오지를 담고 있는 통으로써 후령을 통해 일체의 법을 완성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우리나라 불복장의 특징인 오방과 팔엽통, 후령통의 형성과 의미에 대하여 밀교 경전과의 연결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모든 물목이 오방에 기초하고 있는 『조상경』은 오보병, 오곡, 오약, 오보, 오향, 오황 등은 태장과 금강계 양부만다라와 연결되는 오불을 형성하였으며, 오방경은 오불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

<sup>76</sup> T.39, 627a.08-24

다. 또한 오방은 오방경, 오륜종자와 비밀실지, 진심종자를 통해 오불, 오형, 오자, 오색 등으로써 그 의미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방의 형성은 모두 『대일경』, 『금강정경』, 『묘길상대교왕경』, 『삼중실지귀』 등의 밀교 경전에 의거하고 있어 중국에 전래된 중기 밀교와 그 이후 중국적으로 전개된 후기 밀교와의 연결선상에서 『조상경』의 사상적 배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밀교가 『대일경』을 중심으로 한 태장법, 『금강정경』을 중심으로 한 금강법으로 구분되어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불복장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복장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점사판 『조상경』에서 서술된 안립물목의 특징이 이미 조선전기부터 확인되고 있어 이 시기에 불복장의 밀교적 성격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시대 팔엽통에서 조선시대 후령통이라는 대별·상통되는 중심물목을 형성하였다.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의 팔엽과 오불은 팔엽통과 오보병의 안립을 통해 변화·수용되었다. 또한 금강계만다라의 소리로서 만법을 표출하는 의미가 후령통의 후혈로써 상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후령이 안립물목으로 발견되지 않는 시기와 상통되고 있어 후혈이 후령을 대신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후령통은 오지를 담은 오보병을 오색실로 결계하여 후혈을 통해 외부와 연결됨으로써 일체의 법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우리나라 불복장은 그 안에 내재된 밀교의 만다라적인 요소가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특징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교의식으로써 성립된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key words)\_불복장(佛腹藏, *bulbokjang*), 조상경(造像經, *Josang gyeong*), 오방(五方, five direction), 팔엽통(八葉筒, *palyeoptong*), 후령통(喉鈴筒, *huryeongtong*)

■ 투고일 2015년 8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5년 9월 3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0월 20일 ■

## 참고문헌

-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大毘盧遮那成佛經疏』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佛說陀羅尼集經』  
『妙吉祥平等秘密最上觀門大教王經大教王經』  
『攝無礙大悲心大陀羅尼經計一法中出無量南方滿願補陀落海會五部諸尊等弘誓力方位及威儀形色執持三摩耶幟曼荼羅儀軌』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出三戒秘密三身佛果三種悉地真言儀軌』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戒秘密陀羅尼法』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三界秘密陀羅尼』  
『大樂金剛不空眞實三昧耶經般若波羅蜜多理趣釋』  
『佛說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教王經』  
『略述金剛頂瑜伽分別聖位修證法門』  
『東文選』  
『東國李相國集』  
『造像經』  
국립대구박물관,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불복장』, 2013.  
국립전주박물관, 『심곡사 칠층석탑과 사리장엄』, 2014.  
국립중앙박물관, 『발원發願, 간절한 바람을 담다』, 2015.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법문사와 만다라의 세계』, 해인행, 2005.  
수덕사 근역성보관,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 2004.  
은양민속박물관,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계몽사, 1991.  
월정사 성보박물관, 『華嚴-연꽃가지를 들다』, 2014.  
태경, 『조상경-불복장의 절차와 그 속에 담긴 사상』, 운주사, 2006.  
한국전통문화학회 전통문화연수원, 『天聖山 觀音寺 木造觀音菩薩坐像』, 2010.  
해인사 성보박물관, 『海印寺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誓願』, 2008.  
韓國文化財保護協會忠淸南道支部, 『瑞山文殊寺極樂寶殿發掘調査報告書』, 1976.

- 松長有慶 著·張益 譯, 『밀교경전 성립사론』, 불광출판사, 1993.
- 吳立民·韓金科, 『法門寺地宮唐曼荼羅之研究』, 中國佛教文化出版有限公司, 1998.
- 『法門寺文物圖飾』, 文物出版社, 2009.
- 倉田文作, 『像內納入品』, 日本의美術86, 東京:至文堂, 1973.
- 文化廳 監修, 『重要文化財別卷一像內納入品』, 日本 東京 毎日新聞社, 1978.
- 松長有慶·杉浦康平, 『美と宗教のコスモス—マンダラの世界』, 日本 東京 講談社, 1983.
- 金武生, 『六字眞言의 五佛 五方觀의 成立過程』, 『密教學報』2, 2000, pp. 1-34.
- 김미경, 『八空山 桐華寺 木造三世佛坐像의 佛腹藏 檢討』, 『불교미술사학』3, 2005, pp. 268-291.
- 김순아,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은제사리합·팔엽연화형 받침 고찰』, 『불교미술』20, 2008, pp. 37-67.
- 김영덕, 『密敎의 五相成身觀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_\_\_\_\_, 『金剛界三十七尊의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_\_\_\_\_, 『三種悉地法에 관한 연구』, 『密教學報』10, 2009, pp. 33-54.
- \_\_\_\_\_, 『밀교란 무엇인가?(제5회)』, 『밀교세계』5, 2009, pp. 203-225.
- \_\_\_\_\_,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戒秘密陀羅尼法』, 『불교원전연구』12, 2010, pp. 132-169.
- \_\_\_\_\_, 『金剛界曼荼羅의 韓國의으로 變容에 관한 연구』, 『佛敎研究』34, 2011, pp. 147-173.
- Nabin Bajracharya, 『밀교 오불의 성립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閔泳珪, 『長谷寺 高麗鐵佛腹藏遺物』, 『人文科學』14-15, 1966, p. 237-249.
- 박준석, 『밀교의 아자관에 대한 연구』, 『密教學報』14, 2013, pp. 85-108.
- 심연옥·이선용, 『불복장의 오방색 연구』, 『韓服文化』17-2, pp. 91-107.
- 이선용, 『佛腹藏物 구성형식과 직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佛腹藏物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研究』261, 2009, pp. 77-104.
- \_\_\_\_\_,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에 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278, 2013, pp. 125-162.
- 이승혜, 『高麗時代 佛腹藏의 形成과 의미』, 『美術史學研究』285, 2015, pp. 71-100.
- 이용윤, 『불상봉안의식의 精髓, 腹藏』,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p. 16-29.
- 이주형, 『간다라 불상과 舍利 奉安』, 『中央아시아研究』9, 2004, pp. 12-159.
- 정성준, 『밀교의 관세음보살의 수행이념』, 『天台學研究』7, 2005, pp. 355-377.
- 정은우, 『고려시대 불복장의 특징과 형성배경』, 『美術史學研究』286, 2015, pp. 31-58.
- 조금자, 『태장 만다라 중대 팔엽원 연꽃의 상징적 표현』, 『밀교세계』6, 2010, pp. 101-128.

##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佛腹藏은 像에 腹藏孔을 만들어 그 안에 여러 物目を 安立하는 형식으로 중국·일본의 불장 형식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 불복장이 독자적인 형식으로 발전한 데에는 『造像經』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조상경』은 물목, 의례를 중심으로 한 『諸佛菩薩腹藏壇儀式』, 『妙吉祥大教王經』, 『三悉地檀釋』을 통해 불복장을 불교의식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 경전들은 중기 밀교의 근간을 이룬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하 『대일경』)과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이하 『금강정경』)을 비롯하여 『佛說陀羅尼集經』(이하 『다라니집경』), 『妙吉祥平等秘密最上觀門大教王經大教王經』(이하 『묘길상대교왕경』), 『三種悉地三部儀軌』 등 후기 밀교 경전과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불복장의 중요한 요소인 八葉筒과 喉鈴筒, 그리고 오방에 대해 五佛, 五智의 의미와 사상 등을 밀교 경전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상경』의 모든 물목은 오방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중 五寶瓶, 五穀, 五藥, 五寶, 五香, 五黃 등은 『대일경』의 태장과 『금강정경』의 금강계 양부만다라와 관련된 오불을 형성하고 있다. 태장과 금강계 오불의 지혜는 五方鏡, 五輪種子, 眞心種子와 더불어 오보병, 오색실을 통해 五形, 五字, 五色 등으로 그 의미가 증폭된 반면 『조상경』, 『묘길상대교왕경』의 근간이 된 『묘길상대교왕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장과 금강계뿐만 아니라 『삼종실지삼부의궤』는 고려시대 『묘길상대교왕경』이 도입되기 이전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중국에 전래된 중기 밀교와 그 이후 중국적으로 전개된 후기 밀교와의 연결선상에서 『조상경』의 사상적 배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불복장의 형식이 조선전기 喉穴을 갖춘 후령통의 등장과 함께 변화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불복장의 밀교적 성격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시대 팔엽통에서 조선시대 후령통이라는 대별·상통되는 중심물목을 형성하였다. 태장만다라의 中台八葉院의 형상과 오불은 고려시대 팔엽통과 오보병으로 변화·수용되었다. 조선시대 후령통은 금강계만다라에서 소리로써 만법을 표출하는 의미가 후혈을 통해 증폭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喉鈴이 안립물목으로 발견되지 않는 시기와 상통되고 있어 후혈이 후령을 대신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후령통은 오지를 담고 있는 오보병을 오색실로 결계하여 후혈을 통해 외부와 연결됨으로써 일체의 법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불복장에 있어 밀교의 특징은 물목의 형성, 의식체계, 의미의 수용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즉, 밀교의 오방을 중심으로 한 만다라적 요소가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형식을 지닌 불복장으로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Korean *bulbokjang*

Lee Seon Yong \*

The Korean practice known as *bulbokjang*(佛腹藏), which involves enshrining artifacts in cavities within Buddhist statues differs from equivalent practices in China and Japan, having developed a unique local culture of its own. The Buddhist text *Josang gyeong*(造像經) was hugely influential in the development of this unique form of *bulbokjang*. *Josang gyeong* gives specific descriptions of *bulbokjang* as a Buddhist ritual, based on texts such as *Zhufo pusa fuzang tan yishi*(諸佛菩薩腹藏壇儀式), *Miaojixiang dajiaowang jing*(妙吉祥大教王經) and *San xidi tanshi*(三悉地壇釋), which focus on enshrined items and ceremonies. These scriptures show connections to the *Mahāvairocana Sūtra*(大日經) and *Vajraśeka Sūtra*(金剛頂經), which formed the basis of middle-period Esoteric Buddhism, and late-period Esoteric sūtras such as *Tuoluoni ji jing*(陀羅尼集經), *Miaojixiang dajiaowang jing*, and *Sanzhong xidi sanbu yigui*(三種悉地三部儀軌).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the meaning and ideology behind *palyeoptong*(八葉筒) and *huryeongtong*(喉鈴筒), and the five direction-related Five Buddhas(五佛) and Five Wisdoms(五智), all important elements in Korean *bulbokjang*, within the context of their relationship to Esoteric Buddhist scriptures.

The *Josang gyeong*, in which all items mentioned are based on the five directions, contains elements such as the *obobyong*(五寶瓶), *ogok*(五穀), *o'yak*(五藥), *obo*(五寶), *ohyang*(五香) and *ohwang*(五黃). These are forms of the Five Buddhas, related to the Womb Realm Mandala of the *Mahāvairocana Sūtra* and the Diamond Realm Mandala of the *Vajraśekhara Sūtra*. The wisdom of

---

\* Sudeoksa Temple Museum

the Five Buddhas, in conjunction with the *obang'gyeong*(五方鏡), *oryun jongja*(五輪種子), and *jinsim jongja*(真心種子), which do not appear in the *Miaojixiang dajiaowang jing*, gain extended meaning through the *obobyeong* and *osaeksil*(五色絲) to become *ohyeong*(五形), *oja*(五字) and *osaek*(五色). It is therefore highly likely that not only the Womb Realm and Diamond Realm Mandalas but also *Sanzhong xidi sanbu yigui* had reached Korea before the introduction of *Miaojixiang dajiaowang jing* during the Goryeo period. This tells us that the ideological background to *Josang gyeong* was a continuation of mid-period Esoteric Buddhism from China and, subsequently, late-period Esoteric Buddhism, which continued to develop in a style similar to that of China.

The fact that the forms of *bulbokjang* changed from Goryeo to Joseon in conjunction with the appearance of *huryeongtong* with *huhyeol*(喉穴)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indicates a change in the esoteric nature of *bulbokjang* at this time. This change gave shape to the ke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Goryeo *palyeongtong* and Joseon *huryeongtong*. The formation of the central eight-petal hall depicted in Womb Realm mandala and the Five Buddhas were transformed and accommodated in the Goryeo period in the forms of *palyeongtong* and *obobyeong*. The pipe-like *huhyeol* of Joseon-period *huryeongtong* represents an expression of the universe in the sounds of the Diamond Realm mandala; this corresponds to the period from which *huryeong*(喉鈴) have not been discovered inside Buddha statues, allowing us to surmise that the *huhyeol* was introduced as a replacement for the *huryeong*.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huryeongtong* represents a single, complete dharma by providing a connection between the *obobyeong* inside it and the outside, via the *osaeksil* and the *huhyeol*.

The characteristics of Esoteric Buddhism are visible in all aspects of Korean *bulbokjang*, from enshrined items to rites and imbued significance. In other words, it appears that Esoteric Buddhist mandala-related ele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five directions were incorporated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to produce *bulbokjang* with unique Korean characteristics.